

I.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

-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 시 150:6 **호흡이 있는 자**(everything that has breath) 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 계 4:8 네 **생물**(living creature)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 9 그 **생물들**(living creature)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 던스 스코투스 “피조세계는 서로 공감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symphony)”이다.
- 보나벤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피조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눈먼 사람이다. 피조세계의 외침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일깨우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병어리이다. 그러므로 눈을 뜨라. 여러분의 영적 스승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확대하고 존경하라.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 칼 바르트 “가장 작은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환호한다. 인간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인간 없이 하기도 한다. 그들의 찬양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와 찬양하는 것이다.”

II. 우주적 찬양대: 시편 148편

-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 2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 4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 5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 6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 7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 8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 9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 10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 11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 12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 13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 14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1. 모든 피조물로 구성된 찬양대 (1-4, 7-12)

천사, 군대, 해, 달, 반짝이는 별들, 하늘위의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 (2-4 절)과 용들, 바다, 땅, 불, 우박, 눈과 안개, 광풍,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세상의 왕, 모든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7-12절).

2. 찬양하는 이유 (5-6, 13)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말씀)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영원히 세우고 돌봐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한 없이 높으시고 하늘과 땅 위에 그분의 위엄이 높기 때문이다.

III. 하나님 나라 찬양대원 바로알기

1. **찬양의 주체:** 온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의 교향곡을 부르는 찬양의 주체이다. 어느 존재라도 그 교향악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2. **찬양대의 다양성:** 다양함은 찬양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아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찬양대원으로 참여한다.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땅은 땅으로, 바다는 바다로, 나무는 나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3. **시인의 상상력:** 시인의 상상력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방식이다.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하고 있으며(생태의 제일원칙),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이라는 바탕(뿌리)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인은 만물을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직관을 가진 사람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모든 만물을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한 몸으로 여기야 한다. 이 시편은 프란체스코가 부른 태양의 찬가 (찬송가 69장)의 모티브를 제공했다.

III. 결단과 헌신

1. 모든 피조물은 그 종류대로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다양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들로서 권리와 자리를 갖는다.
2. 우리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의 찬양**을 들을 때 진정한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의 찬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적 찬양의 일부를 구성함을 알 수 있을까. 이 시편은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현존해 계시고, 활동하신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모든 존재의 정당한 응답은 찬양(praise to God)이다.
3. 하나님과 피조물과 사람은 찬양을 통해 모두 연결된다. 사람의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 아픔이 되듯이, 피조물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하나님 나라 찬양대원을 멸종시키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심각한 범죄**이다.

•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오류들을 파괴하는데 도움이 된다. ... 창조물에 대한 오류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관념으로 귀결된다.”